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친밀도와 인터넷 정책 인지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래혁¹, 장혜림^{2*}

¹순천향대학교 향설나눔대학, ²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Influences of Closeness with Parents and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on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RaeHyuck Lee¹, Hae Lim Chang^{2*}

¹College of Hyang-seol Nanum, Soonchunhy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Jangs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친밀도와 인터넷 정책 인지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인터넷 중독 문제를 완화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해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자료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와의 친밀도와 인터넷 관련 정책 인지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의 분석 결과, 분석 대상 청소년들의 전체 척도 점수는 평균 2.09점이었고 하위 요인별로는 금단이 평균 2.20점, 내성이 평균 2.1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부모와의 친밀도가 인터넷 중독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정부의 인터넷 중독 관련 정책을 인지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부 정책 홍보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인터넷 중독, 청소년, 부모의 친밀도, 정책 인지도

Abstract Using data from the 2014 Survey on Internet Addiction perform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closeness with parents and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on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Descriptive analyses showed that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on average 2.09 points on the whole scale of 15 items, but had on average 2.20 points on the sub-scale of withdrawal symptoms and on average 2.18 points on the sub-scale of tolerance symptom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multicultural adolescents' closeness with parents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Internet addiction. Also, multicultural adolescents'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was also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Internet addic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providing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enhancing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to reduce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Internet addiction, Adolescents, Closeness with parents,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oonchunhyang University Research Fund.

*This work utilized data from the survey on Internet addiction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in 2014.

*Corresponding Author : Hae Lim Chang(hlchang@sjs.ac.kr)

Received January 4, 2018

Accepted March 20, 2018

Revised February 23, 2018

Published March 28, 2018

1. 서론

인터넷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삶의 여러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나 유익한 교육의 자료를 제공해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극적이기에 중요한 오락매체이자 사교의 장이 되고 있다. 인간에게 유용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해 주는 이 매체는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고 몰입하게 되면 심각한 중독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중독으로 인한 문제는 전 연령에 걸쳐 심각하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은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면부족이나 체력저하와 같은 영향을 미치거나 우울이나 대인기피 등 사회적 영역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해서 과도한 인터넷의 사용은 청소년의 인지 및 심리정서 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의 문제를 인식한 연구자들은 중독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환경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이란 전제로 인간의 문제를 사정(assessment)하고 개입하는 생태체계관점에 의한 연구들은 중독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부모와 가족 그리고 사회구조 체계까지 초점을 맞추어 생심리사회적 존재인 청소년의 문제를 규명하고 있다[5-7].

한편,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담론이 시작된 시기는 1990년대 중후반이지만[8],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와 관련한 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사회제도가 변화한 시기는 2005년 이후부터이다.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는 속도에 맞춰 정부대책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문화와 관련한 낮은 인식과 수용이 보고되기도 한다[9,10]. 이에 현 시점은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화 과정을 겪는 중요한 시기이자[11], 다문화사회인 한국에서 향후 국민정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해답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12,13]. 또한 다문화 관련대책이 마련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과 향후 제시할 사회적 지원 방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다문화 청소년들 역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발달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비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청소년문화 외에 정체성의 혼란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문제 등 다문화가정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현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과 청소년기라는 보편성 사이를 넘나들며 성장하고 있다.

2016년 현재 7명 중 1명꼴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보고되는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14],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도 인터넷 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모가 맞벌이인 상황이거나 보호감독의 체계가 미흡할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부모 혹은 가족탄력성과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요인을 규명하고 있다[1,2,5,15]. 생태체계적 관점에 의거하면 인간은 미시적 체계 외에 거시적 체계까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체계를 미시체계인 부모 혹은 가족체계까지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거시체계로서 정부의 중독관련 정책은 이를 인지하는 인간의 행동에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개인, 부모요인과 함께 정부정책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부모 친밀도와 인터넷 정책 인지도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를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의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질문 2)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부모의 친밀도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질문 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부 인터넷 중독 정책 인지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이란 개념은 DSM-IV의 물질중독기준을 근거로 Goldberg가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16]. 의학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진단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인터넷 중독을 진단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나 평가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 수준에서 인터넷 중독이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인터넷 접속으로 일상생활을 방해받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컴퓨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동을 말하며 충동적 인터넷 사용(compulsive Internet use, CIU), 문제있는 인터넷 사용(problematic Internet use, PIU), 인터넷 과다사용(Internet overuse), 병적인 컴퓨터 사용(pathological computer use) 등으로도 불리기도 한다[17].

인터넷 중독은 몰입과 중독으로 구분된다. 몰입(flow) 단계란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고, 몰입을 거쳐 중독단계에 이르면 긍정적인 반응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결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중독이란 기본적으로 몰입이 일상생활에 방해를 줄 정도의 단계를 의미한다[2].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중독으로 인한 영향은 신체와 심리, 사회적 발달영역을 아우르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뇌 손상이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의 악화,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8,19].

2015년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19만 7천 55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20].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보장 등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현재의 삶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들의 성인기 삶을 예측하게 해 준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이들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1]. 전국다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 중 약 10%는 아직도 차별을 당하고 있고, 15.5%는 학교생활 및 문화 차이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22].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 노출되면서 다문화와 관련한 사회화와 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도 자연스럽게 인터넷 매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최연과 권호순의 연구에 의하면 [23],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이미 미디어 자체의 속성과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는 콘텐츠,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중독현상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은 개인과 가정, 사회적 요인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문화가정의 특성상 외부활동에 제한이 있어 가정 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에 몰입하는 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양한 연구와 정책 및 제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2016년도에 실시한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교나 민간기관으로 받는 지원은 방과 후 수업료 지원과 대학생 멘토링과 같은 학업 관련 지원, 그리고 문화체험을 비롯한 공연관람, 놀이공원 등과 관련된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학년일수록 급식비와 진로지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희망 교육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형편상 또는 학부모의 가치와 태도, 지원의 한계 등이 있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과 진로지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4].

2.2 부모의 친밀도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부모는 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사회 질서, 규칙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사회적 태도, 정서,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등 기본적인 것을 전수하는 존재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25]. 이와 같이 자녀가 지각하는 부

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가 사회 및 문화를 바라보는 데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심리적 이유기'인 단계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성향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와 같은 발달적 욕구를 이해하지 않으면 가정 내 부모자녀 간 갈등은 당연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6], 이를 지지해주고 있다.

역할모델이자 의미 있는 성인이라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간 친밀도와 관계는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 유대관계와 정서적 지지는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27,28], 반대로 낮은 유대관계는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9].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는 인지와 정서 사회성 발달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0].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이 인터넷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완화하는데 부모가 보호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1].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경제수준과 같은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역시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부모의 존재와 의미를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것으로 청소년기 문제에 대한 개입의 주체로 부모체계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32].

2.3 인터넷 정책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으로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의 문제점이 인식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33,34]. 정보화정책에 관한 인식연구를 수행한 결과,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사업의 필요성이 높게 보고되고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 역시 인터넷 중독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34].

이에 정부도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 제도를 정비하며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2008년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고 이후 2010년도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강제적 섯다운제를 제안하였고, 관련 법인 청소년보호법을 근간으로 게임이용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섯다운제의 효과성을 규명하여 정책효과를 살펴본 결과, 섯다운제가 청소년의 주중과 주말 인터넷 게임시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닐수록, 학습태도가 좋을수록, 부모의 학력이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35] 청소년을 둘러싼 체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모두 유의미한 요인임을 확인해 주었다.

최근에도 정부는 청소년중독예방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전달체계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활용하여 중독예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과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청소년인터넷 드림마을'과 '부모섯택제'를 도입하기 위한 청소년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매해 청소년을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제도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36].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게임 등 인터넷을 많이 하는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인 것으로 나타났다[37]. 하지만 인터넷 중독이라 볼 수 있는 게임중독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시간은 오전시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방임이나 성인의 감독이 부재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38,39] 중독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가정환경과 학교 요인을 강조하면서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체계가 보호요인으로 작동하게 되면, 이들의 중독가능성은 낮아질 것이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클 것이라 예측하게 해준다. 프랑스의 경우도, 청소년중독예방정책에 있어 사회생태체계적 관점에 의해 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크다고 본다[36].

이와 같은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연의 연구에 의하면[6],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터넷 중독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환

경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나 학교생활과 학습의 어려움, 주변 또래와 이웃의 유대, 그리고 차별과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정책과 실천적 함의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상담과 치료교육,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과 사회적 지지망의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탐색적 분석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해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는 전국 단위의 표본을 사용하여 인터넷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는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 인터넷 중독 인지도, 상담 및 치료경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본 연구에 적절한 자료이다. 매해 실시되는 실태조사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서 공개 자료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2016년도 자료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4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4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3세에서 만 59세 이하의 전국단위 표본을 선정하였다[3]. 표본에 포함된 전체 18,500명의 조사대상자 중 약 3%인 500명을 다문화가구원으로 할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500명의 다문화가구원 중 만 10세에서 만 19세까지의 청소년 276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연령 정의는 실태조사에서 이미 정의되어 있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276명의 거주 지역에 대한 전국적 분포는 서울 13.0%, 부산 9.1%, 대구 6.1%, 인천 5.5%, 광주 6.3%, 대전 4.1%, 울산 2.6%, 세종 0.4%, 경기 23.3%, 충북 1.9%, 충남 6.5%, 전북 4.4%, 전남 4.2%, 경북 5.9%, 경남 6.5%, 제주 0.1%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3.2.1 종속변수: 인터넷 중독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인터넷 중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청소년 자가진단 척도들[40-42]을 바탕으로 개발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KS-I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간략형 청소년 자가진단 척도 15문항은 일상생활장애 5문항(예: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등) 가상세계지향성 2문항(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실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금단 4문항(예: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 진다' 등), 내성 4문항(예: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43]. 합산하여 평균을 낸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인터넷 중독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분석 표본에서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전체 척도 $\alpha=0.87$, 일상생활장애 $\alpha=0.72$, 가상세계지향성 $\alpha=0.70$, 금단 $\alpha=0.55$, 내성 $\alpha=0.69$ 로 나타났다.

3.2.2 독립변수1: 부모의 친밀도

부모의 친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시 가족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6문항을 활용하였다[3].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 '부모님은 나를 이해한다',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믿음이 있다',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나는 부모님과 의논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경청해주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부모님은 나에게 칭찬을 잘하는 편이다' 각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문항($\alpha=0.86$)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부모의 친밀도를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친밀도를 의미한다.

3.2.3 독립변수2: 인터넷 중독 정책 인지도

정부의 인터넷 중독 관련 정책 인지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시 사용한 8문항을 토대로 측정하였다[3].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여덟 가지 정부 정책의 인지 여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중복 응답하였다. 각 정책별 인지도는 ‘예방교육’ 72.8%, ‘상담기관 운영’ 48.9%, ‘학교과건 상담 프로그램 운영’ 46.4%, ‘치료 프로그램 운영’ 26.1%, ‘상담 전문인력 양성’ 22.8%, ‘인터넷콘텐츠 사업자 규제 마련’ 17.4%, ‘법제도 정비’ 17.4%,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34.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별 영향을 분석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인지여부와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8문항에 하나라도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로 모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0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2.4 통제변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해서 기존연구[1,6,44]를 토대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선정하여 통제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만 나이), 성별(여자 ‘0’, 남자 ‘1’), 동거 형제/자매 유무(없음 ‘0’, 있음 ‘1’), 다니고 있는 학교 변수(초등학교 ‘1’, 중학교 ‘2’, 고등학교 ‘3’)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분석 대상 청소년들의 가구 특성으로 가구 소득 수준, 부모 맞벌이 여부(아니오 ‘0’, 예 ‘1’), 거주 지역(읍/면 지역 ‘0’, 대/중/소도시 지역 ‘1’) 변수를 사용하였다. 가구 소득은 지난 1년간 세금을 납부하기 전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에 대해 11개의 범주로 조사되었다. 영향요인 탐색을 위해 하층(300만원 미만), 중층(300만원~500만원 미만), 상층(500만원 이상)의 세 개의 범주로 변환한 뒤, 중층을 기준으로 하층과 상층 각각의 이분변수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STATA 14.2M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석 대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첫 번째 연구 질문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 파악을 위해서 분석 대상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별로 인터넷 중독 실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고, 집단 간 차이를 t-test와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질문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친밀도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계 탐색을 위해 앞서 제시한 통제변수를 포함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연구 질

문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부 인터넷 중독 정책 인지도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계 확인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모든 통제변수가 포함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독립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통제변수와 두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모든 중다회귀분석은 다섯 가지 종속 변수(인터넷 중독의 네 가지 하위요인과 전체 척도)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4. 연구결과

4.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만 10세에서 19세까지의 범주에서 평균 14.18세(SD±2.51)로 나타났고, 성별은 남학생이 149명(54.0%)으로 여학생 127명(46.0%)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거 형제/자매 유무는 1명 이상의 형제 또는 자매가 있는 경우(81.9%)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중학생이 102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고등학생 94명(34.1%)과 초등학생 80명(29.0%)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Categorical variables		N(%)
Gender	Female	127(46.0)
	Male	149(54.0)
School	Elementary	80(29.0)
	Middle	102(37.0)
	High	94(34.1)
Sibling	No	50(18.1)
	Yes	226(81.9)
Region	Rural area	95(34.4)
	Urban area	181(65.6)
Dual-income family	No	128(46.4)
	Yes	148(53.6)
Socioeconomic status	Low	118(42.8)
	Medium	135(48.9)
	High	23(8.3)
Awareness of Internet policy	No	43(15.6)
	Yes	233(84.4)
Continuous variables		M(SD)
Age		14.18(2.51)
Closeness with parents		2.92(0.53)
Internet addiction	Disability of daily living	2.01(0.49)
	Virtual world intentionality	1.89(0.62)
	Withdrawal symptom	2.20(0.48)
	Tolerance	2.18(0.54)
	Whole scale	2.09(0.43)

Note. M=mean, SD=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N=276.

다음으로 분석 대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Table 1 참조), 가구 소득 수준은 하층(300만원 미만)이 118명(42.8%), 중층(300~500만원 미만)이 135명(48.9%), 상층(500만원 이상)이 23명(8.3%)으로 분석되어 대부분의 가구가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세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맞벌이 여부의 경우에는 148명(53.6%)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일한다고 응답했고 128명(46.4%)이 부모 중 한 명만 일한다고 대답하여 맞벌이 부모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응답은 읍/면 지역이 95명(34.4%)인 것에 반해 대/중/소도시 지역이 181명(65.6%)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참조). 분석 대상인 청소년들이 보고한 부모의 친밀도는 1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 분포에서 평균 2.92점(SD±0.53)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정부의 인터넷 관련 정책을 인지하는 정도는 분석 대상의 대부분인 233명(84.4%)이 한 개 이상의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점에서 4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척도에서 평균 2.09점(SD±0.43), 네 가지 하위요인인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에서 각각 2.01점(SD±0.49), 1.89점(SD±0.62), 2.20점(SD±0.48), 2.18점(SD±0.54)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focal variables

	Closeness with parents	Awareness of Internet policy	Internet addiction whole scale
Closeness with parents (A)	-	0.005	-0.126*
Awareness of Internet policy (B)	-	-	-0.038
Age	-0.047	0.088	0.023
Gender	-0.018	0.088	0.026
Sibling	0.076	-0.021	-0.133*
Elementary school	0.035	-0.034	-0.085
High school	0.015	0.140*	0.012
Low SES	0.022	-0.053	-0.039
High SES	0.045	0.021	-0.071
Dual-income family	0.029	0.041	0.027
Region	0.058	-0.017	0.102*

Note. *p<.10, *p<.05, N=276.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면(Table 2 참조), 인터넷 중독과 부모의 친밀도 및 형제 유무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그리고 지역 변

수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정부 인터넷 관련 정책 인지도와 고등학생 여부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4.2 분석 대상의 인터넷 중독 실태

Table 3은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질문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 파악을 위해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실태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전체 척도 점수는 비슷하게 나타났고, 재학 중인 학교별로 보면 중학교 평균 2.13점(SD±0.40, 1~4점) 그리고 고등학교가 평균 2.10점(SD±0.45, 1~4점)으로 초등학교 평균 2.04점(SD±0.45, 1~4점)보다 조금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동거 형제/자매 유무별로 살펴보면, 형제 또는 자매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전체 척도 점수가 평균 2.21점(SD±0.40, 1~4점)으로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점수 평균 2.07점(SD±0.40, 1~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4.96, p<.05).

Table 3. Internet addiction by sample characteristics

Variables		M(SD)	t/F
Gender	Female	2.08(0.40)	0.18
	Male	2.10(0.45)	
School	Elementary	2.04(0.45)	1.11
	Middle	2.13(0.40)	
	High	2.10(0.45)	
Sibling	No	2.21(0.40)	4.96*
	Yes	2.07(0.43)	
Region	Rural area	2.03(0.41)	2.87*
	Urban area	2.12(0.44)	
Dual-income family	No	2.08(0.43)	0.20
	Yes	2.10(0.44)	
Socioeconomic status	Low	2.07(0.41)	1.18
	Medium	2.13(0.45)	
	High	1.99(0.44)	

Note. *p<.10, *p<.05, M=mean, SD=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t/F=statistics testing group differences, N=276.

분석 대상 청소년의 가구 특성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의한 인터넷 중독 전체 척도 점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 소득 수준의 경우 중층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전체 척도 점수가 평균 2.13점(SD±0.45, 1~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하층이 평균 2.07점(SD±0.41, 1~4점) 그리고 상층이 평균 1.99점(SD±0.44, 1~4점)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거주 지역으로 살펴보면, 대/중/소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전체 척도 점수가 평균 2.12점(SD±0.44, 1~4점)으로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평균 2.03점(SD±0.41, 1~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t=2.87, p<.10$).

4.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질문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친밀도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계 탐색을 위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가 아래의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하고 부모의 친밀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인터넷 중독의 네 가지 하위요인 점수와 전체 척도 점수 등 다섯 개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모든 분석모형에서 VIF값이 10을 넘는 경우가 없어 투입된 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Table 4. Associations between closeness with parents and Internet addiction

	DV1	DV2	DV3	DV4	DV5
Closeness with parents	-0.14* (0.06)	-0.09 (0.07)	-0.07 (0.06)	-0.08 (0.06)	-0.10* (0.05)
Age	-0.05 (0.03)	-0.05 (0.04)	-0.03 (0.03)	-0.01 (0.04)	-0.04 (0.03)
Gender	0.06 (0.06)	0.03 (0.08)	0.00 (0.06)	0.01 (0.06)	0.03 (0.05)
Sibling	-0.10 (0.08)	-0.06 (0.10)	-0.12 (0.08)	-0.18* (0.08)	-0.12* (0.07)
Elementary school	-0.24* (0.11)	-0.14 (0.15)	-0.24* (0.11)	-0.16 (0.13)	-0.20* (0.10)
High school	0.12 (0.13)	0.28* (0.17)	0.03 (0.13)	0.03 (0.14)	0.10 (0.12)
Low SES	-0.02 (0.06)	-0.11 (0.08)	-0.04 (0.06)	0.04 (0.07)	-0.02 (0.06)
High SES	-0.08 (0.11)	-0.09 (0.14)	-0.25* (0.11)	-0.09 (0.12)	-0.13 (0.10)
Dual-income family	0.02 (0.06)	0.04 (0.08)	-0.02 (0.06)	0.08 (0.07)	0.03 (0.05)
Region	0.13* (0.06)	0.10 (0.08)	0.03 (0.06)	0.12* (0.07)	0.10* (0.06)
Constant	3.09*** (0.51)	2.86*** (0.66)	3.09*** (0.51)	2.64*** (0.57)	2.94*** (0.45)
R-squared	0.07	0.04	0.06	0.05	0.06

Note. * $p<.10$, ** $p<.05$, *** $p<.001$, DV=dependent variable, DV1=disability of daily living, DV2=virtual world intentionality, DV3=withdrawal symptom, DV4=tolerance, DV5=whole scale score, Gender: 1=male and 0=female, Middle school omitted as the reference group, Medium socioeconomic status omitted as the reference group, Region: 1=urban area and 0=rural area, Coefficients presented with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N=276.

네 가지 하위요인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4 참조), 분석 대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친밀도는 일상생활장애와 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B=-0.14, p<.01$). 또한 부모의 친밀도는 인터넷 중독 전체 척도 점수와도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0.10, p<.05$).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심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거나 계획한 일을 못하는 등 일상생활장애 문제의 감소에 있어서 부모와의 친밀도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Table 5는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질문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부 인터넷 중독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와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계 탐색을 위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하고 정부 정책 인지 여부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VIF값이 10을 넘는 경우가 없었다.

Table 5. Associations between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and Internet addiction

	DV1	DV2	DV3	DV4	DV5
Awareness of Internet policy	0.01 (0.08)	-0.21* (0.10)	-0.05 (0.08)	-0.04 (0.09)	-0.05 (0.07)
Age	-0.04 (0.03)	-0.05 (0.04)	-0.03 (0.03)	-0.01 (0.04)	-0.03 (0.03)
Gender	0.07 (0.06)	0.03 (0.08)	0.00 (0.06)	0.01 (0.06)	0.03 (0.05)
Sibling	-0.12 (0.08)	-0.07 (0.10)	-0.13* (0.08)	-0.19* (0.08)	-0.14* (0.07)
Elementary school	-0.22* (0.11)	-0.13 (0.15)	-0.23* (0.11)	-0.15 (0.13)	-0.19* (0.10)
High school	0.08 (0.13)	0.29* (0.17)	0.02 (0.13)	0.02 (0.14)	0.08 (0.12)
Low SES	-0.02 (0.06)	-0.12 (0.08)	-0.04 (0.06)	0.03 (0.07)	-0.03 (0.06)
High SES	-0.10 (0.11)	-0.10 (0.14)	-0.26* (0.11)	-0.10 (0.12)	-0.14 (0.10)
Dual-income family	0.01 (0.06)	0.04 (0.08)	-0.02 (0.06)	0.08 (0.07)	0.02 (0.05)
Region	0.12* (0.06)	0.09 (0.08)	0.02 (0.06)	0.12 (0.07)	0.09 (0.06)
Constant	2.55*** (0.48)	2.74*** (0.62)	2.88*** (0.48)	2.39*** (0.53)	2.62*** (0.43)
R-squared	0.04	0.04	0.05	0.05	0.05

Note. * $p<.10$, ** $p<.05$, *** $p<.001$, DV1=disability of daily living, DV2=virtual world intentionality, DV3=withdrawal symptom, DV4=tolerance, DV5=whole scale score, Gender: 1=male and 0=female, Middle school omitted as the reference group, Medium socioeconomic status omitted as the reference group, Region: 1=urban area and 0=rural area, Coefficients presented with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N=276.

Table 5의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분석 대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정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지는 인터넷 중독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가상세계지향과 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B=-0.21, p<.05).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 정책 중 하나라도 인지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을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가상세계지향의 문제를 줄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Associations between closeness with parents, awareness of Internet policies, and Internet addiction

	DV1	DV2	DV3	DV4	DV5
Closeness with parents	-0.14 ^{**} (0.06)	-0.09 (0.07)	-0.07 (0.06)	-0.08 (0.06)	-0.10 [*] (0.05)
Awareness of Internet policy	0.01 (0.08)	-0.21 [*] (0.10)	-0.05 (0.08)	-0.04 (0.09)	-0.05 (0.07)
Age	-0.05 (0.03)	-0.06 (0.04)	-0.04 (0.03)	-0.01 (0.04)	-0.04 (0.03)
Gender	0.06 (0.06)	0.03 (0.08)	0.00 (0.06)	0.01 (0.06)	0.03 (0.05)
Sibling	-0.10 (0.08)	-0.06 (0.10)	-0.12 (0.08)	-0.18 [*] (0.09)	-0.12 [*] (0.07)
Elementary school	-0.24 [*] (0.11)	-0.14 (0.15)	-0.24 [*] (0.11)	-0.16 (0.13)	-0.20 [*] (0.10)
High school	0.12 (0.13)	0.32 [*] (0.17)	0.04 (0.13)	0.04 (0.15)	0.11 (0.12)
Low SES	-0.02 (0.06)	-0.12 (0.08)	-0.04 (0.06)	0.04 (0.07)	-0.02 (0.06)
High SES	-0.08 (0.11)	-0.09 (0.14)	-0.25 [*] (0.11)	-0.09 (0.12)	-0.13 (0.10)
Dual-income family	0.02 (0.06)	0.05 (0.08)	-0.02 (0.06)	0.08 (0.07)	0.03 (0.05)
Region	0.13 [*] (0.06)	0.10 (0.08)	0.03 (0.06)	0.12 [*] (0.07)	0.10 [*] (0.06)
Constant	3.08 ^{***} (0.52)	3.09 ^{***} (0.67)	3.15 ^{***} (0.52)	2.69 ^{***} (0.58)	2.99 ^{***} (0.46)
R-squared	0.07	0.05	0.06	0.05	0.07

Note. *p<.10, **p<.05, ***p<.01, ****p<.001, DV1=disability of daily living, DV2=virtual world intentionality, DV3=withdrawal symptom, DV4=tolerance, DV5=whole scale score, Gender: 1=male and 0=female, Middle school omitted as the reference group, Medium socioeconomic status omitted as the reference group, Region: 1=urban area and 0=rural area, Coefficients presented with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N=276.

마지막으로 Table 6은 모든 통제변수, 부모의 친밀도 변수, 정부 정책 인지여부 변수를 한꺼번에 투입하여 다섯 가지 종속변수에 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든 중다회귀분석 모형에서 VIF값이 10을 넘는

경우가 없어 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두 가지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도 개별적으로 투입하였을 때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Table 6 참조). 부모와의 친밀도는 일상생활장애 점수 및 전체 척도 점수와 그리고 정부 정책 인지여부는 가상세계지향 점수와 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통제변수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동거 형제나 자매가 있는 것이 내성 점수 및 전체 척도 점수와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이 일상생활장애, 금단, 전체 척도 점수와 부적 관계를 가진 반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가상세계지향과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수준에 있어서는 중층에 비해 상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금단 점수와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거주 지역의 경우 읍/면 지역에 비해서 대/중/소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일상생활장애, 내성, 전체 척도 점수와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인터넷 중독 문제를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의 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분석 대상 청소년의 전체 척도 점수는 평균 2.09점이었고 하위 요인별로는 인터넷을 하지 못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과 같은 금단이 평균 2.20점,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두면 또 하고 싶은 것과 관련된 내성이 평균 2.1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없는 경우에 그리고 읍/면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에 관한 보다 면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 우선, 중독의 하위 영역 중에서 금단과 내성에 관련한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여가나 문화가 다양하지 못할 경우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만이 유일한 놀이나 여가수단이 되고 청소년의 금단과 내성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될 수 있다. 이 결과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기에 청소년기 발달의 특성 상 다양한 놀이와 여가 활동과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부모와의 친밀도가 인터넷 중독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부모와 고민거리를 나누고 부모에게 칭찬을 받는 등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정부의 인터넷 중독 관련 정책을 인지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결과는 인터넷 중독 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노력들(예: 예방교육, 상담기관 운영, 학교과건 상당 프로그램 운영, 치료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인력 양성 등)을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인터넷 중독 문제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실제 정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 중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부모와의 친밀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의 특성상 심리적 이유기라고 명명될 정도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시기이나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여전히 부모요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김민경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개인적으로 우울하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가족탄력성이 높다면 중독과 관련한 위험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 진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발달단계상 청소년기 고유의 보편적 특성과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맞물려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인 청소년기가 상대적으로 힘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와의 친밀도를 강화하는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45]. 부모와의 친밀도를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도 효과적일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거나 다문화가정 부모들 간 자조모임을 형성하도록 도와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 될 수 있

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간 의사소통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녀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거나 건전한 인터넷 사용과 중독에 대한 지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힘을 키우는 전략도 효과적일 것이다[46]. 또한 부모 역시 인터넷 중독의 문제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일반사용자군이면서 자녀가 위험군에 빠질 경우보다(29.7%) 부모가 중독위험군일 때 청소년자녀가 중독위험에 빠지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36%) 나타났다[47].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 부모가 교육이나 다양한 민간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은 멘토링 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인’이라는 존재로 이들에게 역할모델을 보여주거나 멘토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48].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혹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서비스제공기관이 되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멘토를 연결해주고, 단순히 연결만 해주는 차원을 넘어 모니터링을 통해 멘토와 멘티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바쁘거나 여유가 없어 자녀의 양육이나 관계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상황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정부 정책 인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전체 척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인 가상세계를 지향하는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은 금단중세나 내성을 지나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나타나고, 가상세계를 지향하는 증세를 경험하게 된다. 정부 정책이 일정 정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정부는 2014년도부터 청소년 인터넷 중독군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8군데와 함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중독예방운동을 실천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와 지역별 인터넷 중독대응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중독위험에 따른 심리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관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5년간 진행

될 정부정책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생심리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중독원인을 규명하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는 정책홍보일 것이다. 다문화가정은 상대적으로 관련한 정보 접근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홍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49,50].

오세연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터넷 중독의 원인 중 하나로 사회와 또래집단의 차별과 편견이 제기된다[6]. 다문화란 한 쪽 문화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문화를 융합함으로써 시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정책 자체가 다문화에 대한 열린 시각이 부족할 때, 사회 전반은 다문화가정을 소수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 나름의 문화적 특수성을 들어 차별과 편견이란 고정관념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르게' 인식하지 않는 정책과 인터넷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양립될 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표본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다문화가정의 전국적 분포 자료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추후 구축되는 전국 단위의 다문화가정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친밀도를 청소년들이 보고하였기 때문에 과대 또는 과소 보고의 가능성이 있다. 부모에 의해 보고된 부모-자녀 사이의 친밀도 또는 제3의 훈련받은 관찰자에 의해 측정된 친밀도를 활용하여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정부의 인터넷 중독 관련 정책 인지 여부를 측정함에 있어 응답한 청소년들이 여덟 가지 정책 중 하나 이상의 정책을 인지하고 있으면 모두 동일하게 인지함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의 중복 인지와 단순한 개의 정책을 인지했을 때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정책들의 영향도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향후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의 특성을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다문화가정은 집단 내 다양성(예: 출신 국가, 거주 기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통제하거나 영향요인으로

고려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표본을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부모와의 친밀도라는 부모 요인과 정부 정책 인지도라는 사회구조적 요인의 긍정적 영향을 밝혀내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라는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의 발달상의 특성을 규명하여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노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M. K. Kim. (2016).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tress, depression, family resilienc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205-210. DOI : 10.15207/JKCS.2016.7.1.205
- [2] J. S. Min. (2017). A study on the Internet abuse factors of community sentiment: Focused on social presence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1(1), 153-164. DOI :10.21184/jkeia.2017.01.11.1.153
- [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5). *A survey on Internet addiction*.
- [4] K. S. Young.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In L. VandeCreek & T. L. Jackson (Eds.), *Innovations in clinical practice: A source book* (17, pp. 19-31).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5] K. S. Kim. (2009). *The parents-related factors prediction model for Internet game addiction of adolescence*. Ph.D. dissertation, Seoul: Chung-Ang University.
- [6] S. Y. Oh. (2013). A study on the reasons and solutions of Internet addiction in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7(3), 165-189. DOI : 10.18398/kjlgas.2013.27.3.165
- [7] J. K. Lee & W. Y. Choi. (2011). Study on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f Internet addiction of the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6), 2085-2104. DOI: 10.15703/kjc.12.6.201112.2085
- [8] Y. M. Kim. (2013). Critical considerations for multi-cultural discourses and policies in Korea. *Journal*

-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35(1), 141-174. DOI: 10.18206/kapdh.35.1.201308.141
- [9] I. J. Yoon & Y. H. Song. (2011).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3(1), 143-192.
- [10]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2). *A study on multiculturalism*.
- [11] B. E. Seo. (2017). The factors affecting cyber delinquency among Korean youth: Focus on school level difference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5(1), 77-99.
- [12] S. C. Park & Y. S. Yun. (2017). The impact of adolescent's national identit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3(2), 19-30.
- [13] J. A. Bank. (2009). Human rights,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al Forum*, 73, 100-110. doi.org/10.1080/00131720902739478
- [14] T. I. Kim. (May 25, 2017). *Internet and smart phone addictions*. Yonhap News. <http://v.media.daum.net/v/20170525060031407?f=0>
- [15] O. Y. Eom. (2010).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 giving effect to juvenile's Internet addiction: Focusing on depression and self-control*. Ph.D. dissertation, Seoul: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 [16] I. Goldberg. (May 25, 2017).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users.rider.edu/~suler/psycyber/supportgp.html>
- [17] Wikipedia. (n.d.). *Internet addiction disorder*.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addiction_disorder
- [18] C. B. Weng et al. (2013). Gray matter and white matter abnormalities in online game addiction. *European Journal of Radiology*, 82(8), 1308-1312. DOI: 10.1016/j.ejrad.2013.01.031
- [19] K. S. Young. (2009). Understanding online gaming addiction and treatment issues for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7(5), 355-356. doi.org/10.1080/01926180902942191
- [20]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5). *2015 statistics on foreign population*.
- [21] M. K. Song, S. H. Jee, E. K. Cho & Y. S. Lim. (2008). A study on the parental experience of a foreign mother in a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 497-517.
- [2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An analysis o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5*.
- [23] Y. Cui & H. S. Kwon. (2014).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media addiction and strategy of media education fo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Migration and Society*, 7(2), 61-84.
- [24]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6). *A longitudinal survey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IV*.
- [25] J. D. Kwon. (2014).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Seoul: Hakjisa.
- [26] B. S., Hong & M. A. Nam. (2013). *Youth welfare*. Goyang: Knowledge Community.
- [27] S. Y. Kim & Y. S. Kim. (2017). A study on the health inequality in childhood: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between the social economic level and health problems. *Forum For Youth Culture*, 50, 8-30.
- [28] I. H. Song & J. H. Park. (2011). The effect of parent-child bonding on adolescent health promotion behavior: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6), 75-98.
- [29] E. S. Kwon & I. H. Ku. (2010).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s health.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4), 129-148.
- [30] J. H. Kang. (2012). *The relation between the multi-cultural family father's participation in rearing of children and the children's adaptability i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children*. Master thesis, Seou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31] S. H. Park. (2009). *A study on resilience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Ph.D. dissertation, Naju: Dongshin University.
- [32] Y. J. Lee. (2011). A study on parent-children relation influences on Internet excess utility of adolescents in digital perio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9(6), 104-111.
- [33]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2004). *A survey on youth Internet use*.
- [34] Y. S. Sung. (2006). A study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information policy.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4(3), 15-38.
- [35] Y. J. Lee. (2011). A study on cognition and policy of shut-down system of adolesc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9(3), 21-29.
- [36] E. J. Lee. (2016). The implication of French policy for preventing adolescent addiction based on the social ecology theory. *Studies on Life and Culture*, 41, 1-51.
- [37]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4). *A survey on Korean and Japanese game users*.
- [38] H. S. Kim. (2010). The effects of the school environmental factors on Internet addition in adolescence: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5(1), 193-200.

- [39] S. W. Choi & S. H. Kim. (2015). Influence of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on addiction to smart phone: Mediation effect brought in by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2(3), 365-383.
- [40]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2002). *A study on developing counseling and preventing programs for Internet addiction*.
- [41] D. N. Greenfield. (1999).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mpulsive Internet use: A preliminary analysis. *Cyber Psychology & Behavior*, 8(5), 403-412. doi: 10.1089/cpb.1999.2.403
- [42] K. S. Young.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3), 899-902. DOI: 10.2466/pr0.1996.79.3.899
- [4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Third standardization of Korean Internet Addiction Proneness Scale*.
- [44] D. R. Shin, H. G. Baek & J. H. Kang. (2008). A study of the key factors on the Internet addiction of the you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6(3), 93-107.
- [45] S. I. Yun, H. S. An & S. W. Oh. (2012). The influence of the attachment of parents and the stress of school life middle-school students to the Internet fame addi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7), 221-227.
- [46] J. A. Ryu. (2016). A study for parent education for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29(4), 125-131.
- [47]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6). *A survey on Internet addiction*.
- [48] C. J. Yu, G. T. Kim & S. H. Lim. (2012). The study on welfare service of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5), 19-26.
- [49] S. Y. Park & S. N. Yang. (2015).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et use time among adolescents: Focused on convergent impli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9), 387-395. DOI : 10.14400/JDC.2015.13.9.387
- [50] B. H. Yoo, S. M. Kim, H. G. Baek & J. H. Kang. (2009). Impact of Internet addiction on school life adapt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7(2), 71-81.

이 래 혁(Lee, RaeHyuck)

[정회원]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복지
E-Mail : raehyucklee@sch.ac.kr

- 2014년 10월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사회복지학박사)
- 2016년 1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향설나눔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

장 혜 립(Chang, Hae Lim)

[정회원]



아동복지, 사회복지실천
E-Mail : hlchang@sjs.ac.kr

- 2012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박통합 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3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BK박사후과정 연구원
- 2014년 3월 ~ 현재 :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